

졸업철에도 화훼단지 상인들 '울상'

9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화훼단지. 차가운 물이 담긴 양동이속 꽃들은 형형색색의 모습을 뽐내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졸업식 대목을 위해 화훼 단지를 찾은 소매 상인들은 진열된 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한 소매 상인은 분홍색 장미꽃 한 단의 가격을 물으며 도매상과 흥정을 시작했다.

도매상은 "짜게 드리고 싶는데 저희도 힘들어서..." 등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는 답을 반복했다. 수많은 소매 상인이 화훼 단지를 거쳐갔지만 도매상들의 표정은 대부분 밝지 않았다.

광주 지역 생화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곳 화훼단지에는 도매상 20여 곳이 입점해있다.

졸업식과 어버이날 등 꽃 관련 특수 절마다 붐비던 곳이지만, 도매상들은 코로나19 확산기를 지나며 매출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7천~8천원 장미꽃 한 단 1만3천~1만5천원 올라 농가 난방비 부담 여파에 꽃값 폭등·매출 담보



9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화훼단지에서 한 꽃 소매상인이 꽃을 고르고 있다.

다. 올해 졸업식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대면 형태로 열려 대목이 예상됐지만, 생화 가격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농가 부담 생산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면서다. 북구 망월동에서 비닐하우스 10동을 운영하는 한 화훼농가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

월 동안 난방비 명목으로 쓴 등유 비용만 2500여 만 원에 달한다.

등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4000여 만 원을 투입, 전기 난방 시설로 모두 교체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농업용 전기세가 올라 등유 난방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 금리도 올라 시설 투자비에 쓰인 대출 원금을 갚는 일도 힘에 부친다. 튼튼 등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근 작물 값도 운송비가 늘었다.

농가의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훼단지 내 장미꽃 한 단 가격은 1만3000원~1만5000원 선으로 경총뒤었다. 이는 평소 7000~8000원에 비해 약 1.5배 쯤 가격이다. 졸업식이 몰려있던 지난해는 장미꽃 한 단에 2만~3만 원에 거래됐다.

/조일상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27일까지...정책 융자금 가구당 최대 5억원 저리 지원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 예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농업시설 설치·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융자금을 가구당 최대 5억 원, 연리 1.5%(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업 관련 고등·대학교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 이수자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일상 기자

전남소방, 설 화재예방 불시점검 추진 다중이용·피난약자·주거취약 시설 점검 돌입

전남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예방 집중 점검활동을 펼친다. 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화재예방 대책은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주거취약 시설 등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8건으로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총 7명(사망 5명·부상 2명), 재산피해는 4억 9000여만 원이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79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건(18%), 기계 5건(4.2%), 방화·화학 등 기타요인 12건(10.1%)으로 나타났다.

전남소방은 화재 걱정 없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를 목표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조사, 화재 취약 대상 안전관리,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 조성, 화재 예방 집중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과 속



박시설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예고 없이 방문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유관기관 합동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점포·대상물 관계자 주도의 자율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매주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한다.

또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과 대형 공사장, 물류창고는 관계인 자율점검부 결과에 맞춰 소방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박종배 기자

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 기재'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99급 쌍타당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8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7.7km 해상에서 고등어 등 2250kg

과 3660kg을 각각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500kg과 2000kg을 포획한 것처럼 허위(축소)로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A호 등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전남, 명절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위반행위 엄벌

20일까지 22개 시·군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도내 22개 시·군 농산물·농산가공품 판매업소를 비롯해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과수·산채류·지역농산물·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우려 표시를 집중 점검해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소비자의 권의 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의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제도다. 원산지 미표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우려 표시 행위는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종배 기자

목포시민단체 '운영중단' 시내버스 대표이사 경찰 고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운영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목포시내버스 이한철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목포경찰서와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은 9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

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목포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수령에는 피고발인 측의 성실한 자구노력을 전제하고 있으나 경영개선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는 최근 경영개선안을 목포시에 제출했으나 목포

시는 '수용 불가'를 통보하고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의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이어 "제 2순위, 3순위로라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스공급을 계속하겠다"는 목포도시가스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정상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보조금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전남도 수산생물 질병 전담 공수산질병관리사 18명 모집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정적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을 위해 공수산질병관리사 18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다.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채용되면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업무를 비롯해 질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의약품 사용지도 등을 한다.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질병 진단, 치료, 양식 위생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운영 중이다.

/박종배 기자

농장직영 진남멤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